성경은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Ⅳ(최종회)

The Bible has the secret that the human body does not die

Hello, Continuing from last week, today, the Bible has the human body's secret not to die.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다!"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The saying to man, "to have the heart of God", means that man is God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은,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The Bible says that man is God, and humanity is god, and man is god. Where can we find this word? There is a word that tells people to have the heart of God. "To have the mind of God", anything cannot have the heart of God unless it is God. 성경 말씀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요, 인간이 곧 신이다!" 사람이 신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느냐? 바로 사람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입니다. 신의 마음을 품어라는 것은 신이 아니면 신의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겁니다.

Therefore, the saying to man, "to have the heart of God", means that man is God. Also, to man,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is to be born again as the Spirit of God. To be reborn as God means that man used to be God, but now He is imprisoned in the devil's prison. Therefore, the saying means "man is a god." 그런고로 사람더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말은,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이 되는 고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었었다! 그러나 현재는 마귀옥에 갇힌 하나님의 신이다!'라는 뜻이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신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Materialists in this world insist that there is no God in this world. These are words spoken while they were not aware that people do not know God's identity and that people themselves are gods. 이 세상에 유물론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는 학설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정의를 모르는 자요 바로 사람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는 가운데서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The material of thought comes from the human body 사람의 몸에서 생각의 물질이 나온다

Therefore, 'man himself is God!' It can be scientifically proven that what is being said is correct. The material of thought comes from the human body. The fact that the material of thought comes out of the human body is precisely what the Bible says that the Spirit of God is light. 그런고로 '사람 자체가 신이다!' 하는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입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 몸에서 생각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생각의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도 '하나님의 신은 빛'이라고 한 것입니다.

Dr Sermoa, a psychic scientist in the old Soviet Union, took a picture of Kirlian using high-frequency waves. When he took a picture, the light emitted from Kirlian's body came out in the picture, and they announced worldwide that an aura comes out of the human body. They only found that the light was coming out, but why the light comes out and what material the light is made of is unknown to scientists worldwide today. 그런데 저 소련에서 작년도 세르모아라고 하는 심령과학자가 키를리안이라는 사람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습니다. 찍어보니 키얼리언 몸에서 빛이 방사되는 그러한 빛이 그 사진에 찍혀 나와서 세계적으로 '사람 몸에서 오오라가 나온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빛이 나오는 것만 알았지, 빛이 왜 나오는지 그 빛이 무슨 물질인지 이것까지는 오늘날 이 세계 과학자들이 포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7년 10월 18일 뉴욕 한국교포방송사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총 4회 중 최종회차 방영된 조희성 총재님의 설교 장면

This man is claiming that the light is the Spirit of God. It is written in the Bible that God is light. Therefore, the light that comes out of the human body proves that the Spirit of God exists in the human body, and it means that the Spirit of God lives in the human body. 이 사람은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바로 '빛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 몸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 몸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As I said last week, the Spirit of God is not at the top of the sky. Ephesians 6:12 says that the god in the air is an evil spirit, and Ephesians 2:2 says that the god who has authority over the air is a devil. 그런고로 하나님의 신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꼭대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것이 마귀라고 쓰여 있고 공중의 신이 악신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써져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권세 잡은 신은 마귀신'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God's blood is flowing in us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Therefore, according to the Bible, the devil is at the top of the sky, and God is in man. If we look at our state and our circumstances, we are not made of other blood. We are made from the blood of our ancestors. We were made from mother's and father's blood, made from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blood, made from great-grandmother's and great-grandfather's blood, keep tracking to the top of the bloodline, then finally made from Adam's and Eve's blood. 그런고로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늘꼭대기에는 마귀가 있고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바로 다른 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조상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고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고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피로 만들어졌고 계속해서 올라가면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Therefore, who can deny the fact that God's blood is flowing in us? The blood of God is the Spirit of God, and the blood of God is the life of God. Therefore, blood is life, and life is blood. It is written in Leviticus 17:11 and Genesis 9:4 that blood is life. 그런고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는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고로 '피가 생명이요 생명이 피'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창세기서 9장 4절에도 '피가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refore, as it is written in John 1:1, life is the life of God, and life is the Spirit, the spirit itself is life, life itself is blood, and blood itself is life. Therefore, human blood contains the Spirit of God. 그런고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이 영'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생명이 영이요 영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생명이 되는 고로 그런고로 사람의 피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Because God's blood is in man, it is said that the Spirit of God resides in each person. Even if we look at the principle of blood, we can know that it contains God's blood, and we can also see it by looking at the phenomena of our hearts. Each person has a conscience. The conscience is a good spirit, a good spirit is a good god, and a good god is the god of God. 그런고로 하나님의 피가 사람 속에 있는 고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 원리학적으로 논해도 하나님의 피가 들어 있다가 되지만은 우리가 움직이는 현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선한 영입니다. 선한 영은 선한 신, 선한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단에 계속

성경은 영육일체론을 논한다

The Bible discusses monism of spirit and body

The god of God is the conscience, and the conscience itself is the action of the blood of God. Therefore, If we look at the Bible verses that say, 'No one can tell that the kingdom of God is, here it is, or there it is, but it is in your hearts.' and the verses that say, 'wherever God is, there is the kingdom of God.', we can see that the spirit of God is within people and that 'wherever God is, there is the kingdom of God.' So the kingdom of heaven is realized in living people, but to say that the soul ascended to heaven after death is unbiblical logic. 하나님의 신이 바로 양심이요 양심 자체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피의 작용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계시다고 성경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바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고로 하늘나라는 살아 있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People die because their sins are not resolved. There is a saying that you will die for the wages of your sins, and go to hell for the wages of your sins. To die is to die because of sin. So, to die means to go to hell. Therefore, today, the sayings "when we die, we go to heaven" and "when we die, our souls go to heaven" are words spoken without knowing the Bible.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겁니다. '죗값으로 죽는다, 죗값으로 지옥 간다'는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고로 죽었다는 것은 지옥 갔다는 말입니다. 그런고로 오늘날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 갔다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Therefore, today's saying "You go to heaven when you die" is a lie. This is because they do not know what heaven is, nor what the soul is. The Bible has words about the soul of a dead person and the substance of the soul. Man died because of sin, and he died because his sin was not resolved in any way. Everyone died because of sin. Since man died because of sin, the death of the body is equivalent to the death of the spirit. 그런고로 오늘날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극락세계 간다'는 말씀은 전부가 거짓말입니다. 그런고로 천국이 뭔지 바로 영혼이 뭔 줄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뭔지, 영혼의 실체가 뭔지 성경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은고로 죄를 해결 못받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죽은 고로 사람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영이 죽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육일체 : 육체(Body)=생명(Life)=영(Spirit)

Blood itself is life, life itself is spirit, and spirit itself is life 피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 자체가 영이요, 영 자체가 피

The Bible says that the human body is a spirit and the human body is a god. However, looking at this Bible, it is wrong to know, explain, and preach as if the soul and body are separate beings. 사람의 몸이 영이요 사람의 몸이 신이라고 성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영혼이 따로 있고 육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Therefore, where it is written that the soul is a person's body, I explained last week, but it is noted that the spirit is the blood. It is recorded in John 1:1 below that life is the Spirit, and the Spirit itself is the life. 그런고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바로 영이라는 것은 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영이요 영 자체가 생명이요.'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world was created with the Word, and it is written that the Word is life, life is light, and light is the Holy Spirit. Therefore, it is said that life itself is a spirit. It is recorded in Proverbs 4:23 that the source of life is in the heart, and it is recorded in Leviticus 17:11 that life itself is blood and blood itself is life. Also, in Genesis 9:4, it is written that blood is life. Therefore, blood itself is life, life itself is spirit, and spirit itself is life.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고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요 빛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고로 생명 자체가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잠언서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생명 자체가 피요 피 자체가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로 창세기서 9장 4절에도 "피가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로 그런고로 피 자체가 생명이요, 생명 자체가 영이요, 영 자체가 피라는 말씀입니다.

Since blood forms flesh and body, blood is also spirit, and the human body is also spirit. Therefore, "to be born again of the Holy Spirit" is interpreted as being reborn as the Spirit of God. In the words "to be reborn as the god of God", there is a meaning that the human body is a God. Therefore, the human body is God. Therefore, the death of a person's body is the same as the death of a person's spirit. 그런고로 피로써 살이 되고 몸이 되는 고로 사람의 몸이 영인 고로 사람더러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그 말속에 사람의 몸이 신이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고로 사람의 몸이 신이요 그런고로 사람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면에 계속